

紹聖四年(丁丑)高麗 肅宗二年 西紀一〇九七) 丙戌月(月建)로 달을 表示한 듯한 바 戌月은 九月에 該當한 것이 다. 그런데 지금 月 建推定法으로 보면 同年 九月은 丙戌이 아니라 庚戌인 바

시 庚戌로 誤記한 것이 아닌가 싶다) 二十(念)三日에 鑄造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이는 演福寺鐘에 比하면 約二百五十年이 앞선 것이다. 그리고 이 銘文에 보이는 百巖山에 關하여 살펴보면 顧祖禹의 讀史方輿紀要卷四九 河南四 懷慶府 修武縣條 天門山註에 縣西北四十里 諸山唯此最低 故名天門 其巖下 可容百家亦名百家巖이라 하였다. 이로 보면 이 百巖山의 百巖은 百家巖의 略稱인 듯하며 따라서 百巖山이 곧 지금의 天門山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宋鐘의 傳來에 關하여 傳燈寺 住持 및 江華人士의 말에 依하면 日政末期에 敗戰에 뒤덕이던 日人들이 供出이라는 名目아래에서 金屬器具類까지 收奪하여 갈 때 우리의 貴重한 文化財가 數없이 被奪되었거니와 傳燈寺鐘도 그 때에 빼앗겼다. 뒤이어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에 解放이 되자 傳燈寺側에서는 그 빼앗긴 鐘을 찾으러 富平 軍器廠으로 갔던 바 마침 이 鐘을 그곳에서 發見하고 마침내 옮겨다 놓았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日帝末期에 侵略主義日本은 所謂 支那事變을 일으켜 華北華中에서 많은 文化財를 掠奪하여 그들의 本國으로 가져갈 때에 이 鐘은 아마 艦船으로 仁川에 실어다 놓은 것을 金屬不足으로 뒤덕이던 그들 無識輩가 普通 梵鐘으로 알고 이 鐘을 富平軍器廠으로 다시 옮겨다 놓은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어쨌든 이 鐘은 銷禍를 免하고 傳燈寺로 옮겨져 保存케 된 것은 實로 奇蹟의인 喜幸事로서 말하자면 이 鐘은 千年의 神

物인 만큼 역시 神·佛의 守護를 받은 것이라고도 할 것이다. 이번 江華島 文化財實態調査에 있어 特히 이 梵鐘의 實測과 榻印에 수고해준 文化財管理局의 李浩官 學藝士·京畿道學務局 張昇澤 主事·江華郡 教育課長 李俊性氏 傳燈寺住持 鄭紀鳳氏等 諸位의 厚意에 感謝를 表하는 바이다.

崔元銘青磁象嵌梅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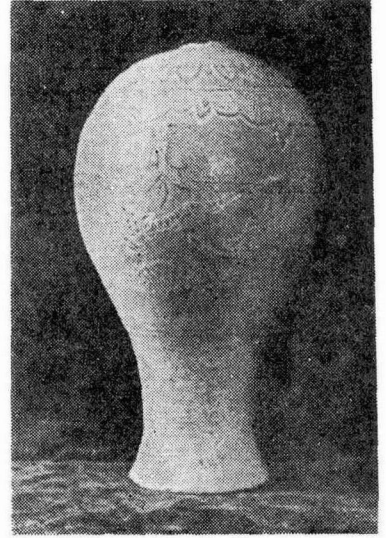
崔 淳 雨

「沙籠介」라는 黑象嵌記銘이 있는 粉靑流의 象嵌 蓮花文梅瓶 하나가 오래전부터 國立博物館에 收藏되어 있었다. 이 沙籠介란 記銘에 關해서는 그 意味를 밝히지 못하고 다만 「籠介」는 人名일 것이며 「沙」는 陶工이란 뜻이 아니겠느냐 ① 하는 程度로 미루어 두었던 것이 이번 우연히 某 地方人士의 收藏品에서 거의 이와 같은 質의 粉靑流의 龍魚文梅瓶에 一面에는 「崔元」 一面에는 「籠介」라는 黑象嵌 記銘이 들어 있는 遺例가 發見되어 前者와 아울러 재미 있는 資料를 얻게 되었다.

이 「崔元」銘 梅瓶은 胴部둘레에 四瓜龍 두마리를 象嵌하고 各其이 龍頭앞에는 잉어로 보이는 물고기 한 마 리씩을 象嵌해서 마치 龍이 잉어를 잡 아먹으려는 듯한 態勢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諧謔味 있는 圖文을 이루고 있다. 瓶 다리에 는 等行三 重 白象嵌劃線아래



로 매우稚氣있는 솜씨로 楊柳文을 두르고 그 一面에는 芝草狀의 草文이 象嵌되어 있다. 어개部分에는 高麗靑磁의 伏紗文에서 退化된 것으로 보이는 蓮瓣을 中心으로 한 무늬가 둘러 있는 데 이



伏紗文狀의 무늬는 「沙籠介」銘梅瓶의 경우도 거의 類似한 솜씨를 보이고 있다. 이 두개의 瓶에서 「沙籠介」와 「籠介」는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지는 있을 만한 文獻을 모두 뒤져 보았으나 찾아 볼 수 없었고 다만 「崔元」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高麗史 世家卷二十六 二十五葉 三行에 元宗十年條記事에 「縣令崔元」이란 이름이 보이고 그 以前으로는 高麗史 世家卷四 顯宗二年四月條에 「別將崔元」同一年正月條에 「戶部尙書崔元」東史綱目에 보이는 新羅孝恭王代에 唐에 使臣갔던 「慶賀使判官崔元」 등의 이름이 보이지만 모두 이 梅瓶의 製作年代에 符合되는 時代의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 이름조차 別로 큰 期待는 없게 되었다.

대체로 이 梅瓶의 器形과 技法으로 짐작되는 時代樣式은 麗末李朝初의 것으로 보여짐에 아마도 十四世紀 後半頃の 作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類型的 作品으로서 在銘의 例를 들면 德壽宮美術館所藏의 乙酉司醞署銘梅瓶과 義成庫銘梅瓶이 있으며 前者는 대체로 忠穆王元年乙酉의 作品으로 推定되었고 後者는 李太祖 元年으로부터 太宗二年까지의 사이에 된 作品으로 判明되고 있다. 그러나 이 崔元銘梅瓶은 器形으로 보아서 乙酉司醞署銘梅瓶보다는 義成庫銘梅瓶에 더 類似的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瓶은 乙酉司醞署銘梅瓶과 義成庫銘梅瓶사이의 約半世紀동안의 어느 時期의 作品으로 볼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된 것이다. 이 梅瓶의 釉色은 洋灰色에 가까운 發色이며 굽은 施釉가 充分치 못했던 듯엿은 赭色

을 보인 부분이 있으며 굽도리가 매우 넓은 扁平한 앞은 굽이다. 병입은 缺損되어 있으며 높이는 現在高二九·三cm 最大胴徑은 一六·七cm이다.

註

- ① 陶器大辭典
- ②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一〇三頁
- ③ 註②

石製奏樂像

秦 弘 燮

慶北大學校 附屬博物館에 奏樂像이 彫刻된 조그마한 石片이 保管되어 있다. 높이 二·六·五cm 두께 一〇cm의 石材로서 奏樂像만 남고 左右가 切斷되었는데 現在의 길이는 上部 一五·八cm 下部 一七cm로서 浮屠基壇部같은 데 있었던 石材로 推測된다. 彫刻面은 上下로 二段의 層을 두르고 길이 一·六cm의 凹面을 만들어서 彫刻面의 높이가 一六·七cm가 되게 하였다. 이 部材는 原來 옆으로 긴 石材로서 이 奏樂像 左右에 도다 큰 像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彫刻된 像은 두 손으로 琵琶를 잡고 彈奏하는 座像이다. 顔面은 磨損되었으며 樂器를 잡은 左手가 缺損되었는데 原石에 破損된 자리가 없고 左手팔목에서 切斷되었으며 琵琶의 끝도 切斷된點으로 보아 이 部分만은 圓刻하였던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蓮座위에

